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 최대주주 부상

주식 2227만주 952억원에 취득 ... 금호산업은 1000억원 유동성 확보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2월21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2227만주를 952억원에 취득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33.5% 가운데 12.7%(2269만여주)를 주당 4275원에 금호석유화학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14.0%에서 26.7%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고, 금호산업의 지분율은 33.5%에서 20.8%로 낮아졌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우건설 매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호산업은 1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으로써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22>